

이런날.

사이좋은正門의 두돌기둥끝에서
五色旗와、太陽旗가 춤을추는날、
금(線)을꿴은地域의 아이들이즐거워하다、

×

아이들에게 하로의乾燥한學課로、
해스말간 勸怠가기뜯고、
「矛盾」 두자를 理解치못하도록
머리가 單純하였구나、

×

이런날에는
잃어버린 完固하던兄을、
부르고싶다。

一九三六、六月十日、

이런 날

사이좋은 정문의 두 돌기둥 끝에서
오색기와 태양기가 춤을 추는 날
금을 그은 지역의 아이들이 즐거워하다.

×

아이들에게 하루의 건조한 학과로
햇말간 권태가 깃들고
「모순」 두 자를 이해치 못하도록
머리가 단순하였구나.

×

이런 날에는
잃어버린 완고하던 형을
부르고 싶다.

1936. 6. 10.